



웹진 <해안선>에 접속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을 만나세요!



海·安·船
SEA·SAFETY·SHIP

KOMSA MAGAZINE

해안선

VOL. 51
2022 AUTUMN

바다의 가을,
바다와 추억

Contents

바다의 가을, 바다와 추억

발행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발행일	2022년 9월 30일(통권 51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표지 일러스트	이신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고객의 행복을 지켜나갑니다.

<해안선>에 기재된 내용 일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 Autumn Vol. 51

Talk of the Sea

04

포토 海세이

추억과 낭만, 그 한가운데 선 바다



08

에코 트래블

청산도에서라면,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

14

플레이존

제주 유일의 바다낚시 체험장이라고?
신흥바다낚시공원 '낚고락고'

18

바다를 품은 식탁

가을을 찾아온 밥도둑
꽃게의 감칠맛을 찾아서

Playing by the Sea

20

KOMSA 스테이지

험난한 바다 앞,
안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제주지사

26

바다가 그린 삶

해녀들이 일군 삶의 터전
법환여촌계

30

슬기로운 바다생활

바다 환경 지키기
해변 플로깅 가이드

32

바다 옆 박물관

자연의 신비와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다
소금박물관



34

바다를 부탁해

바닷속 물결치는 지구의 희망
친환경 신소재로 거듭난 해조류

36

바다 큰 사전

우리 선박 접안합니다,
정온도는 어떤가요?

Chorus for the Sea

38

KOMSA 브레이크 타임

힐링과 추억이 공존한 시간
'KOMSA 힐링캠프'

42

쭈민 KOMSA

즐거운 해양레저 활동은
안전으로부터 출발한다!
'2022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46

스마트한 KOMSA

거래는 편리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어선거래제도 운영

48

KOMSA 뉴스 라운지

49

KOMSA 네트워크

50

함께海요

이벤트

추억과 낭만,
그 한가운데 선 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뜨고 저물 때마다 또 다른 세상과 만난다.
바다와 하늘이 붉게 물드는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특별한 추억을 아로새긴다.

Text. 최미혜



붉은 추억, 태안을 거닐며

바다는 우리에게 수많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오랜만에 떠난 여행의 설렘으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로,
사랑하는 이들과의 한때를 떠올리는 그리움으로.

삶에 진한 여운을 남긴 바다와의 추억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빨간색이 아닐까.
붉은빛으로 뒤덮인 바다의 풍경은
자연의 경이로움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의 길이가 가장 긴 곳,
충남 태안에서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암자 안면암과 부교,
그 끝에 자리한 부상탑 위로 떠오르는 일출.
닿을 듯 말 듯 서로를 향한 애달픔을 가진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할미 할아버지 바위가
보여주는 서해 3대 낙조.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잇는 꽃게 다리 주변으로
물감을 푼 듯 조용히 퍼져가는 야경까지.

붉은 원형의 태양이 바다 너머로 모습을 감추는 순간,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이 고개를 내민다.

청산도에서라면,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빠른 만큼 편리해졌지만, 가끔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가 버겁기도 하다.
여유는 사치라는 듯한 도시를 피해 조금의 느낌은 아무 상관 없는,
느린 게 오히려 괜찮다는 섬, 청산도로 갔다. 청산도에서 알게 된 느낌의 미학.

Text. 임혜경 Photo. 정우철



1
|

청산도로 가려면

청산도는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50분 남짓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완도 역시 우리나라 땅끝마을이라 불리는 해남 옆 동네이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으로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멈칫할 필요는 없다. 꽤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편 덕분에 전국 방방곡곡 가지 못할 곳은 없으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KTX를 타고, 목포에서 1시간 40분 남짓 달려 완도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향하는 방법이 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가장 최종적으로는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으로 완도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가면 된다. 완도에서 청산도로 가는 배는 하루 6번 운행되고 있어서, 다른 섬에 비하면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다만, 모든 섬이 그러하듯 기상의 이변이 있다면 배가 출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탑승 전 날씨의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2
—



‘오늘이 날’이라는 듯 바람도 잔잔히 불어오고, 하늘도 본연의 색을 드러내고 있는 완연한 초가을 날에 청산도행 배를 무사히 탈 수 있었다. 한 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가야 해서 뱃멀미로 고생하지 않을까 잠시 걱정하기도 했지만, 기우였다. 큰 배의 규모 덕분에 실내 역시 잘 갖춰져 있어서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었다. 특히 바깥으로 나가 바닷바람도 쐬 수 있고 바다 풍경도 보며 갈 수 있다는 게 좋았다.

- 1 고즈넉한 청산도의 전경
- 2 슬로시티의 상징, 달팽이와 찰칵
- 3 완도에서 청산도를 왕복하는 여객선의 모습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다운

바닷바람을 쐬며 좋은 날씨를 만끽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청산도. 배에서 내리는 분주한 사람들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다. 청산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곳이기에 똑똑하게 여행을 해야 한다. 11코스로 되어있는 슬로길이 대표적인데 코스별로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행시간이 많지 않은 여행자들은 차를 선적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 청산도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기는 하나, 시간을 잘못 맞추면 기다리는 시간이 꽤 걸려서 여행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이도 저도 싫다면, 느리게 걸을수록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는 청산도 곳곳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다만, 이 여행법을 선택한다면 넉넉한 일정은 필수여야 할 것이다.

잘 되어있는 슬로길 중에서도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는데, 제일 먼저 슬로1길을 가보기로 했다.

3
|



Info

- 완도 연안여객선 터미널(wando.ferry.or.kr)에서는 하루에 6회 청산도행 배를 운항 중이다.
- 청산도를 여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조금 편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차를 선적하거나 청산도 내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④
|



— ⑤



미항길-동구정길-서편제길-화랑포길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청산도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영화 <서편제>로 유명한 서편제길과,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 풍어제로 유명한 당리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리 입구에 주차를 하고, 슬로1길을 걸었다. 걸으며 보이는 푸른 바다, 노랗게 익어가는 벼와 코스모스가 가득한 들판, 푸른 하늘을 끼고 있는 당리마을의 전경에 청산도의 이름값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청산도는 산,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러 붙여진 이름인데,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슬로1길을 걸으며 만난 꽃은 여러 가지였는데, 주로 코스모스가 길 양옆에 가득했다. 지금은 가을이라 코스모스가 대부분이지만, 계절마다 그 계절을 상징하는 꽃들이 슬로1길을 가득 메운다고 한다. 그러니 어느 계절에 와도, 슬로1길은 아름답지 않을까. 욕심 같아서는 청산도의 사계절을 다 보고 싶을 정도다.

범바위를 지나 다랭이논으로

슬로1길을 지나, 슬로5,6길로 향했다. 슬로5길은 범바위길-용길, 슬로6길은 구들장길-다랭이길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먼저 간 곳은 슬로5길. 호랑이의 모습을 한 범바위가 있다고 해서 호기심이 생겼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매우 좁아, 초보 운전자라면 운전대를 과감히 고수에게 넘길 것을 권한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조금 걸으면 범바위를 만날 수 있다. 범의 머리 모양을 닮아 범바위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봐도 범의 형태를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유래처럼, 한 호랑이가 바위를 향해 포효한 소리가 자신이 낸 소리보다 크게 울리자 이곳에 더 큰 호랑이가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놀라 섬 밖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호랑이를 닮지 않았건, 닮았건 간에 이곳 역시 경치가 빼어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방으로 펼쳐진 바다는 초가을의 더위도, 여행의 피로도 한방에 날려줄 만큼 시원했기에.

— ⑥



- 4 부친 편지를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다는 느림 우체통
- 5 느릿느릿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슬로길
- 6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코스모스 핀 청산도
- 7 호랑이가 웅크린 모습을 닮은 범바위

한참을 범바위에서 머물다가 슬로6길로 갔다. 범바위 인근이어서 한 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다. 좁디좁은 길을 지나면 보이는 구들장논은 경지 면적이 작고 돌이 많아 물이 부족한 청산도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근 다랭이논 역시 마찬가지다. 농지와 물이 부족했던 땅을 논으로 일궈낸 것. 청산도만의 특이한 형태의 논과 밭을 볼 수 있고, 섬사람들의 애환과 열정이 깃들어 있어 다른 길과는 색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느릿느릿 걸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청산도. 한없이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고 나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서인지,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청산도에서의 여유와 쉼 덕분에 정신없는 일상을 꽤 잘 견뎌낼 수 있을 것만 같다. 🌊

⑦
|



제주 유일의 바다낚시 체험장이라고?



신흥바다낚시공원 '낚고락고'

TV 예능프로그램
<도시어부>의 인기 덕분일까?
최근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아졌다. 낚시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주말의
휴식도 포기하고 바다로
가는 걸까. 이런 낚시의
매력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바로
제주 신흥바다낚시공원,
'낚고락고'다. 미끼를 덥석 문
물고기를 낚을 때의 쾌감!
그 짜릿한 손맛을 느끼러 go!

Text. 박영화 Photo. 전재천

제주 유일의 바다낚시 체험장

제주올레 19코스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에메랄드빛의 함덕해변. 제주는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지만 함덕해변은 유독 바다색이 예뻐 관광객이
특히 많다. 그런데 함덕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음으로 들르는 코스가 있다고 한다. 해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신흥바다낚시공원 '낚고락고'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낚고락고는 제주 유일
바다낚시 체험장으로, 배를 타지 않아 해상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평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낚시를
하거나 아이들도 쉽게 낚시의 손맛을 즐길 수 있는 것.
낚고락고에 도착하면 먼저 무인계산기에서 결제를
해야 한다. 낚시손맛체험은 한 시간 정도로 낚시
1대당 2만 원인데, 낚싯대와 미끼가 무료로 제공된다.
낚싯대를 이용하지 않는 동반인의 입장료는 4천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이곳에서는 낚시
체험뿐만 아니라 낚은 물고기를 회로 먹을 수도
있는데 손질비가 5천 원, 포장을 하면 7천 원 정도다.





66

수온이 내려가는 봄, 가을에는 물고기를 낚을 확률이 90%일 정도로 낚시가 잘 된다고 하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이곳을 찾으면 낚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99



5개의 ZONE으로 나뉜 낚고락고

신흥바다낚시공원 낚고락고의 크기는 5천여 평에 달하는데, 다섯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낚고 ZONE'은 뱃멀미 없이 안전하게 낚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총 4칸 중 2칸은 가두리에서 낚시를 하고, 다른 2칸에서는 대어에 도전할 수 있다. 우럭, 참돔, 돌돔, 방어, 감성돔, 뽕에돔 등 어종도 다양하다. 하지만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수온이 급격히 높아지는 여름에는 낚시 입질이 적어 잘 낚이지 않는다고. 수온이 내려가는 봄, 가을에는 물고기를 낚을 확률이 90%일 정도로 낚시가 잘 된다고 하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이곳을 찾으면 낚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테우낚시 ZONE'에서는 제주도 전통 낚시배인 테우(뗏목형태)를 타고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낚시도 하고 배도 타는 두 가지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락고 ZONE'은 낚은 물고기를 제주도 내 회센터나 전통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즉석에서 회로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대기실과 매점'은 방문객이 대기하는 장소로 구명조끼, 키오스크, 테이블 등이 구비되어 있고, 밀짚모자 등 낚시에 필요한 추가 물품이나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셰프 ZONE'은 낚은 물고기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활어 취급 전문 주방장이 회를 뜨는 장소다. 올가을 바다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낚는 손맛'과 '맛보는 즐거움'이 있는 낚고락고에서 제대로 즐겨보자. 

낚고락고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273-33(함덕해변 인근)
064-783-8855
오전 10시~오후 5시(주말, 공휴일 오픈시간 10시)

Fish Species

낚시 전 알아보자! 낚고락고에서 낚을 수 있는 대표 어종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낚시를 하기 전 어떤 어종이 바닷속에 있는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바다의 폭군으로 불리는 돌돔부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어종인 우럭까지, 낚고락고에서 낚을 수 있는 어종을 소개한다.



바다의 폭군
돌돔

낚시인에게는 바다낚시 최고의 어종이자 미식가들에게도 최고의 미어로 대접받는 고급어종이다. 수온 변화에 따라 입질의 차이가 심하며, 작은 크기의 돌돔도 힘이 강해 손맛이 짜릿하다.

가격 100g 당 4,500원



바다의 여왕
참돔

기름기가 많아 고소하고 묵직한 맛이 일품이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풍부한 어종으로,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돌돔에 비해 2배가량 크고 크기에 맞게 당기는 힘이 강해 어린이 혼자 낚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있다.

가격 100g 당 3,100원



바다의 왕자
감성돔

담백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으로 씹는 맛이 일품이다. 감성돔은 특히 겨울철에 맛있는데 회로 먹어도, 구워 먹어도 육질이 촉촉하고 탱탱한 생선이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감성돔을 낚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린다.

가격 100g 당 3,500원



바다의 흑기사
뽕에돔

살이 기름져 맛이 좋은 뽕에돔이다. 영리하고 민첩해서 그물에 걸리지 않아 낚시로만 잡아야 하며,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격 100g 당 4,400원



겨울이 오면 가장 맛있는 어종
방어

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특유의 향이 있어 겨울철 최고의 인기 어종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서 본 낚시터에는 중간 크기의 방어를 방생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시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어종
우럭

매우 쫄깃하고 밀도 있는 식감을 자랑하며,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럭회를 최고로 여긴다. 먹성이 좋아 빠른 입질을 가하기에 초보 낚시인들이 타 어종에 비해 쉽게 낚을 수 있다.

가격 100g 당 2,400원



가을을 찾아온 밥도둑 꽃게의 감칠맛을 찾아서

전 세계에 4,500여 종, 우리나라에만 18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게. 겉은 딱딱한 껍데기로 무장했지만, 속은 무엇보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재료다.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입맛 사로잡는 대표 밥도둑, 특히 우리의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꽃게’를 소개한다.

Text. 최미혜 Photo. 고인순 Food Styling. ST.형님

집게발부터 게딱지까지, 버릴 것 없는 ‘꽃게’

한 쌍의 집게발과 네 쌍의 걷는 다리를 가진 게. 열 개의 다리로 바닷속을 기어 다니며 해양생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일명 ‘바다의 청소부’다. 꽃게, 대게, 참게, 돌게, 털게 등 다양한 종류의 게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지만, 대표를 꼽자면 단연 꽃게다.

서해안의 주요 수산 자원으로 꼽히는 꽃게는 수심 2~110m의 모래 혹은 모래진흙 바닥에 서식하며, 사시사철 만날 수 있다. 특히 꽃게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시기는 역시 가을. 꽃게는 가을에 접어들면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산란기를 지나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꽃게를 맛볼 수 있다.

꽃게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 함량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철을 맞은 가을 꽃게는 더욱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한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기억력과 인지능력 향상, 치매예방 등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칼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골다공증 예방과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도 좋다. 이러한 칼슘 성분은 꽃게의 속살보다 껍질이나 내피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할 것. 게 요리를 할 때는 신선도가 중요하다. 자칫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손끝으로 발을 눌렀을 때 탄력 있는 것을 골라 구입하길 권한다. 🇵🇸

Recipe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맛, 얼큰 꽃게탕



재료 꽃게 2마리, 모시조개 150g, 무1/5개, 애호박 1/3개, 콩나물 1줌, 홍고추와 청양고추 1개씩, 대파 1대, 썬갓 1줌, 멸치다시물 1.5L

양념장 고춧가루 3큰술, 다진 마늘과 된장, 참치액, 맛술 각 1큰술씩, 새우젓 1/2큰술, 후추 약간

- 1 꽃게는 솔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고 게딱지를 분리한 뒤, 아가미를 떼어내고 2등분 한다.
- 2 무는 5x4cm 크기, 두께 0.5cm 정도로 나박썰기하고, 애호박은 0.5cm 두께로 반달썰기, 홍고추와 청양고추, 대파는 얇게 어슷썰기 한다.
- 3 볼에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 4 냄비에 멸치다시물, 무를 넣고 한소끔 끓인 뒤 ③의 양념을 넣는다.
- 5 ④가 끓어오르면 꽃게, 모시조개를 넣고 끓이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애호박, 콩나물, 고추,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끓인다.
- 6 불을 끄고 ⑤에 썬갓을 넣어준다.



험난한 바다 앞, 안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제주지사

제주 해상의 관문, 연안여객터미널에는
제주 바다와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바로 KOMSA 제주지사와 제주 운항관리센터다.
제주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KOMSA인들을 만났다.

Text. 최미혜 Photo. 전재천

천혜의 자연, 제주 바다를 지키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눈부신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가
넘실댄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스르르 녹아드는
제주 바다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하는 사이, 변화무쌍한
바다의 이면을 알기에 더욱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KOMSA 제주지사 직원들이다.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 위치한 제주지사는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구좌읍, 추자면, 한경면,
우도면 총 4개읍과 3개면, 그리고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안덕면 총 3개읍 2개면을
관할한다. 22명의 구성원이 어선 1,946척, 일반선
162척 총 2,108척과 수상레저기구 1,889척의 검사를
맡아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제주지사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김선권 지사장은
제주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태안과
울산 근무를 거쳐 처음 제주에 배를 타고 들어올
때는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기상이 변하는 제주 바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

외지인에게 쉽게 마음을 터놓지 않는 제주분들과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3년 동안 아웅다웅하며 부대끼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삶은 바다 그 자체다. 삶의 터전이자 생계의 중심이고, 일상에 행복을 불어넣는 귀중한 존재다. 제주지사는 이러한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선박검사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 제주 출신이자 제주지사에서의 근무 경험이 가장 많은 김태언 부장은 선박 검사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처음 제주지사에 근무했던 2007년보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주분들의 반응이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검사를 하나며 반발이 심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슈를 거치며 검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됐죠.”

제주지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통’이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선주들이 원하는 건 규제 완화인데요. 안전에 대한

66

가장 큰 변화는 선주분들의 반응이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검사를 하나며 반발이 심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슈를 거치며 검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됐죠.

99

의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요즘은 추가 설비 의무화 등의 검사 조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에, 선주들의 한탄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제주지사는 선주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이해시키고,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끈끈한 협업으로 하나 되어

제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지사는 선체, 기관, 전기 등 분야별로 전문 검사 인력을 운영하며



효율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지역구분에 따라 관할기관이 나뉘어 있어, 각각의 업무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사의 경우, 그 지역의 경찰서 한 곳과 일하지만, 제주지사는 경찰서만 3곳과 함께 협업하는 식이다. 선체 담당 선임 검사원인 설재민 차장은 업무량은 3배지만, 수많은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만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사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제주 운항관리센터와의 끈끈한 관계도 제주지사 발전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제주 운항관리센터와는 긴밀하게 협업하는 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산업안전 이슈로 함께 논의했는데요. 선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뽑아내는 과정이었기에, 서로 발굴한 내용을 공유했죠.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제주지사는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은 물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구성원들이 있기에 더 나은 제주 바다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탬 수 있다고 말한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종이 매우 다양하다. 여객선부터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잠수함, 2톤 미만 뗏목 등 가장 작은 배부터 큰 배까지 검사하다 보니 검사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김선권 지사장은 “저희의



역할이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모든 제주지사 구성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꼼꼼한 선박검사, 원활한 소통으로 제주 바다의 안전을 지켜나간다는 다짐을 밝혔다.

Mini Interview

제주지사 김선권 지사장

“보물섬, 제주의 바다를 안전한 우리의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1995년 입사 후 지금까지 본사 및 11개 지사에서 근무한 김선권 지사장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제주 바다의 특성상 선박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고 예방에 드는 노력보다 사고 수습에 따른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안전한 우리의 바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사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제주도민의 안전문화 가치 고양과 안전의식 함양에 앞장서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주안전문화대상'을 공모했는데요. 저희 제주지사가 교통 부문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주지사장으로서의 바람은 저희 지사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KOMSA를 알리고,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운항관리센터

안전한 운항을 위한 끝없는 노력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제주

운항관리센터(이하 제주 센터)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 마라도부터 추자도까지 관할한다. 14명의

운항관리자가 서해안의 인천부터 남해안 부산까지

운항하는 카페리 여객선 총 11개항, 16척을 관리

중이다. 김종주 센터장은 제주 센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제주 센터는 마라도, 가파도를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의 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여객 수송실적의 약 20% 이상(제주항 10%,

마라도 10%)이며, 또한 자동차 등 화물수송 실적은 약

25%로 제주 센터의 안전관리가 ‘여객선 안전 척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세심한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는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센터는

여객선의 안전을 반드시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하는

운항관리자의 임무로 정의하고, 하루하루 사고 없는

보람된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제주 센터는 모슬포와 추자도에 통신 거점인

운항관리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여객선과의 교신을

통해 항로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기에 무전에 문제가

없도록 거점을 둔 것이다. 모슬포 운항관리 사무소에

근무 중인 이용상 과장은 “마라도나 가파도에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요. 들어갔다가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기상이 좋을 때 들어갔다가 나올 때쯤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여객들이 무사히 섬을 왕복할 수

있도록 선사와 미리 협의합니다”라며, 안전 운항을

통해 여객들의 여행 목적을 달성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해양사고 OUT! 제주 센터의 행보

제주 센터에서는 제주항 내에 있는 모든 배를

점검한다. 14명의 구성원이 8개의 조로 움직이고 있어

구성원 간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종주 센터장은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주간회의를 신설했다.

“일주일에 한 번, 배가 없는 시간대인 매주 화요일

1시간 정도는 구성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주간회의가 진행됩니다.



서로의 일정에 맞춰 업무를 분배하기도 하고, 센터의 현안을 공유하죠.” 강수빈 주임은 주간회의의 내용을 메일로도 전달하기 때문에 제주 센터 구성원 모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준비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최근 제주 센터의 가장 큰 이슈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풍향계 추가 설치다. 강창우 주임은 그간

선장님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7월, 제주항 내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설치했어요. 센터장님과 기상청, 제주도청, 해수부

관리단이 협업체 빠른 시간 내에 풍향계 2개를 설치한

건데요. 기존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던 풍향계

1개까지, 총 3개소의 풍향계를 이용해 제주항에

입항하는 선장님들께 실시간으로 최대풍속과 평균 풍속을 분 단위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주 센터장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알면 입출항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어 제주항 내 해양사고의 반은 줄어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제주 센터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KOMSA와

KOEM이 연계한 ‘찾아가는 여객선 선원 교육’을 통해

방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부터 빈도가 높아진

부유물 감김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점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안전한 운항은 제주 센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다. 오늘도 제주 센터는 안전이 담보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항으로 나선다. 

Mini Interview

제주 운항관리센터 김종주 센터장

“운항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제주 센터가 되겠습니다.”

1995년 운항관리자로 입사해 전국에서 여객선이 가장 많은 지역, 목포와 완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 근무는 두 번째입니다. 제주 센터에서의 근무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올해 3월, 제주항 내에서 돌풍에 의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장의 조선 능력 한계를 넘는 자연현상 앞에 우리의 역할, 운항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항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 3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7월에는 제주항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의 통 큰 결정과 의지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상기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모두가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주 센터도 함께 웃을 날을 기대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해녀들이 일군 삶의 터전 법환어촌계

제주 서귀포 해안의 절경이 모여 있다는 올레 7코스. 그곳에 법환어촌계가 자리한다.
국내 최남단 어촌마을이자 국내 최초의 해녀 양성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법환어촌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Text. 최미혜 Photo. 전재천

숨비소리 가득한 바다마을 이야기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제주지사에서 차로 1시간 반 남짓 거리, 제주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라산 능선을 따라 달리면 법환어촌계에 다다른다. 멀리 보이는 범섬과 마주한 법환어촌계에서는 고즈넉한 제주의 풍경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육각의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바다와 바람이 빚어낸 자연 해수풀에서 해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더없이 평화롭다.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법환어촌계 고승철 계장이 제주지사 김대훈 검사원을 반갑게 맞이했다.

벌써 65년, 법환마을에서 나고 자란 고 계장은 현재 법환해녀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다. “법환어촌계는 현재 70여 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부락이며, 해녀들이 열심히 물질해 가정을 이끌어왔죠. 하지만 생계를 책임져온 해녀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 해녀학교 설립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5년, ‘법환 좀녀마을 해녀학교’가 문을 열었고, 벌써 8기생까지 총 241명이 졸업, 그중 61명이 각 지역 어촌계에 가입한 상태다. 고 계장은 해녀 문화의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이 법환어촌계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을에서 태어나 물질하며 살아온 삶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현여생 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자랑을 보탠다. “우리 계장님 자랑을 하고 싶네요. 이전 계장님들도 훌륭하셨습니다, 고 계장님이 계원들을 잘 이끌어주고 계세요. 법환어촌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전복과 해삼, 소라인데요. 특히 제주에서 자연산 전복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우리 어촌계 해녀들이 산란기에 전복을 잡지 않고 금어기를 잘 지키는 건 계장님의 철저한 단속 덕분이죠.” 이렇게 법환어촌계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과 공존하며 삶을 꾸려가고 있다.

제주지사와의 유대 속, 새로운 꿈꿔

지난 2021년 9월, 제주지사와 법환어촌계는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안전점검 정례화 및 해양사고 예방과 교육을 위해 자매결연한 것이다. 김대훈 검사원은 “제주지사는 법환어촌계와 수시로 연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물론 선주, 선장님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어업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고승철 계장은 제주지사 김선권 지사장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사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제게 전화도 자주 하시고, 법환어촌계에

때마침 해녀체험센터를 나서던 해녀회 문순자 부회장과 법환어촌계의 계원 현여생 여사가 인터뷰 자리에 합석했다. 문순자 부회장은 55년, 현여생 계원은 35년 동안 활동해온 베테랑 해녀다. “법환어촌계 자랑을 한다면 셀 수 없이 많지만, 제가 평생 살면서 느낀 건 주민 간의 끈끈한 관계예요. 해녀 어르신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어촌계의 질서를 잘 유지해왔기에 지금의 우리 마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순자 부회장은 아름다운

Mini Interview



법환어촌계 고승철 계장

제주지사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경 써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만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랄 뿐입니다. 전 제주 전통의 해녀 문화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해녀회 문순자 부회장

해녀로서의 삶은 힘들고 고되지만, 그만큼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환어촌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제주지사에 감사사를 전합니다.



법환어촌계 현여생 계원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지키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저희에게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지사처럼 저희도 기본을 잘 지켜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웃음) 어업에 필요한 장화, 조끼 등 상당히 많은 물품을 지원받았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이후 법환어촌계는 제주지사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해녀 양성에 좀 더 힘을 쏟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제주 해녀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1960년대에는 24,000여 명의 해녀가 활동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17,000여 명으로 줄었고, 이제는 3,600여 명 규모라고 한다. 앞으로 10년 후, 70~80세의 고령 해녀들이 은퇴하고 나면 제주에 남는 해녀는 1,000여 명 남짓. 고 계장은 해녀 문화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제주 전체는 물론 법환어촌계가 성장한다며 해녀학교 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법환어촌계의 새로운 목표 역시 해녀학교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기수마다 30여 명의 교육생을 훈련시키기에는 건물 규모가 너무 협소합니다. 앞으로 어촌계장으로서의 임기가 4년이 남았는데, 임기 내에 해녀학교 건물을 2층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이어 고 계장은 법환어촌계가 있는 법환포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다가올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법환포구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하죠. 법환포구에 31척의 배가 있는데, 주의보라도 뜨면

서귀포로 피항을 가야 해요. 지난번에는 야간에 피항을 가다 배 한 척이 뒤집힌 적도 있어요. 다행히 인사 사고는 없었지만, 추후 주의보 정도에는 피항을 갈 일이 없도록 시설이 나아졌으면 합니다”라며 포구 시설 확충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주의 상징인 해녀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는 관계. 제주지사와 법환어촌계의 유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Plogging

바다 환경 지키기 해변 플로깅 가이드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조깅(Jogging)이 합쳐진 단어다. 우리말로로는 ‘줍깅’이라고도 하는데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한다.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운동도 되고, 환경보호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변에서 할 수 있는 플로깅 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Text. 정재림 Reference.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블로그



준비물을 챙기세요

플로깅을 위해 준비할 것은 쓰레기봉투와 집게, 장갑이다. 날카로운 해양 쓰레기에 다칠 수 있으므로 장갑과 운동화는 꼭 착용하길 권장한다. 오랜 시간 바닷가에 있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피부 보호를 위해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쓰레기를 모으는 봉투는 일회용 봉투보다는 종량제 봉투 또는 에코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상에 유의하세요

플로깅은 일반적인 조깅과 비교해서 약 50kcal 정도의 에너지를 더 소모한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하체 부위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아리나 허벅지, 고관절을 위주로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쓰레기를 주울 때는 허리를 굽혀서 줍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주워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 미리 확인하세요

해변은 만조, 간조 시각과 지형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 만조는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간조는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대개 6시간마다 만조와 간조가 바뀌므로 조류 변화 시간을 미리 알아두자. 또한 갯벌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들어가지 말고, 갯벌에 폭 꺼진 물길, 즉 갯골이 나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말자.



분리수거 뒤처리도 잊지 마세요

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쓰레기인 담배꽂초의 필터 부분은 90% 이상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니 열심히 모은 쓰레기가 다시 버려지지 않도록 뒤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주운 쓰레기는 재활용 여부에 따라 분류해서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자.

플로깅 크루와 함께 달려볼까요?

플로깅은 하나의 취미활동이자 환경보호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SNS상에서 ‘#플로깅’, ‘#줍깅’, ‘#쓰줍’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인증사진을 볼 수 있다. 함께 뛰고 함께 줍는 다양한 플로깅 크루들과 동행해보면 어떨까?

자연의 신비와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다

소금박물관

Slow Life & Slow Style

조선왕조실록에는 곡식이 없어도 채소와 소금을 함께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식품인 소금.
이 소금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있다.

Text: 정재림 Photos Provided: 소금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생명의 시작과 역사가 담긴 소금

소금은 바닷물을 가뒀놓은 염전에서 만들어진다. 깨끗한 바닷물이 햇빛과 바람으로 천천히 증발하고 나면 고운 소금이 남는다.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소금은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신경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런 소금의 가치를 통해 ‘모든 생물은 생명이 시작된 바다를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소금박물관이 세워졌다. 140만 평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염전 ‘태평염전’에 위치한 소금박물관은 1948년에 지어진 석조 소금창고의 내부를 리모델링해 2007년에 개관했다. 이곳은 경제사나 기술사, 사회사는 물론이고 예술과 신화를 넘나들며 인류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소금의 역사를 재미있게 보여준다. 또한 소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소금발 체험의 장이기도 하다.

장인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곳

소금박물관은 국산 천일염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이를 위해 석조 소금창고로 쓰였던 과거의 생산시설을 그대로 보존했다. 과거의 유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담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의미를 인정받아 근대문화유산 제361호로 등록됐다. 내부에는 소금의 역사와 기원, 소금 생산에 필요한 도구, 소금으로 만든 조각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을 따라 소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과 올바른 소금 사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어른은 물론 미래세대인 아이들도 천일염과 음식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 특징. 우리 천일염으로 담긴 김치, 젓갈, 된장, 간장, 고추장 등 한국 고유 슬로푸드의 우수성을 소금박물관에서 알아보자. 🌐

Seaweed

바닷속 물결치는 지구의 희망

친환경 신소재로 거듭난 해조류

바다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오색의 숲이 있다. 파랗고 노랗고
붉은 해조류는 사랑살랑 제 몸을 흔들며 모든 생명체에게
인사를 건넨다. 바다의 채소로서 우리는 흔히 해조류를 입으로
즐겨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기후변화 시대에 해조류가
플라스틱 및 일회용 대체재로 떠오른 것이다.

Text. 강초희 Photos Provided. 마린이노베이션

해조류의 '이노베이션'한 터닝 포인트

지구에 살기 시작한 최초의 생명체 중 하나인 해조류. 미역,
김, 파래 등 그 종만 약 3만 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비타민과 칼슘, 철분, 마그네슘, 요오드가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 최근 헬스케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해조류
역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는데, 국수, 샐러드, 올리고당 등
다양한 건강식으로 출시되어 해조류를 외면했던 서양에서조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해조류의 진가는 '건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 현재,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면서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소정의 성과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마린이노베이션이다. '바다에서 혁신한다'는 사명에서 알 수 있듯
바다에서 지구의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해조류다.
지구 면적의 약 70%는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 그 뜻은, 해조류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는 의미다. 오랜 연구개발 끝에 해조류
부산물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대체할 친환경 신소재를
완성한 마린이노베이션은 이를 소재로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 '자누담'을 출시했다. 해초 종이컵을 비롯해 해초
종이접시, 생분해 비닐봉지, 포장 패키지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누담은 불필요한 코팅제 대신 친환경
키토산 코팅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모든 제품은 90일
이내에 생분해된다.



모두의 실패 속 단 하나의 성공

앞서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탕수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과 자누담의 차이점은
극명하다. 첫째,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가가 저렴하다. 둘째, 해조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균성이다.
덕분에 세균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해조류는 생분해를
빨리 촉진시키는 성분이 있다. 그로 인해 목재나 다른 친환경
소재에 비해 더 빨리 생분해된다.
물론 해조류로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려던 곳이 없진 않았다.
실제로 컵을 제작한 회사도 있었고, 비닐류를 만든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마린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상용화를 하려면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앞서
성공했던 사례들은 이를 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 하더라도 개당 만 원이라는 가격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터다. 하지만 자누담의 경우 종이컵 10개입 2천 원,
봉투 50장을 4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라는 슬로건으로 깨끗한
지구 환경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마린이노베이션.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Playing by the Sea

바다 큰 사전

우리 선박 접안합니다, 정온도는 어떤가요?

언론 매체를 통해 항만에 무수히 많은 선박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런 의문이 든 적 있는가. “자동차도 주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선박의 접안 역시 그런 점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항만에 접안 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정온도’다. 그런데 정온도라는 단어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들이 많을 터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쉽게 풀어쓴 정온도 해설 사전.

Text. 강초희

정온도가 많이 낮선가요?

배가 항만에 접안할 때는 정온(靜穩)이 중요하다. 정온의 한자를 뜻풀이하면 ‘고요하고 평온함’으로, 해양 언어로서의 정온은 해수면의 안정 상태를 뜻한다. 즉, 잔잔한 파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선박을 아무리 튼튼하게 제작했다 하더라도 파도가 거세다면 배를 정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정확히 파고들어 정온도에 대해 알아보자. 정온도는 항만의 박지(泊地) 내 정온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박지는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를 모두 풀어서면 항만에서의 파도가 잔잔한 정도를 정온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항만에 꼭 있는 ‘이것’, 그 이유에서였다?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뉘며 주차하는 방법 역시 약간씩 다르다. 선박도 마찬가지다. 소형선, 중·대형선, 초대형선에 따라 적절한 정온도가 다른 것. 일반적으로 소형선은 파고 0.3m 이하, 중·대형선은 0.5m, 초대형선은 0.7~1.5m가 좋으며, 이를 기준으로 항만 시설을 설계한다. 그렇다면 일정한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 있지 않을까? 이는 항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파제라 답할 수 있다. 방파제는 외부의 파도로부터 항만을 지킴과 동시에 정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항만의 위치를 검토할 때 적절한 파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파제의 높이와 배치를 고려해 결정한다.

힐링과 추억이 공존한 시간

힐링은 멀리 있지 않다. 좋은 사람들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시간을 즐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업무 현장을 벗어나 동심 가득한 에버랜드에
모인 KOMSA인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Text. 최미혜 Photo. 전재천 Video. 성동해

KOMSA 힐링캠프



KOMSA 직원들의
'힐링캠프' 참여 영상을
QR코드로 접속해 확인하세요.



KOMSA인 여러분, 함께 달려볼까요?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8월의 어느 날, 용인 에버랜드에서
'KOMSA 힐링캠프'가 열렸다. 평소 업무적으로 겹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웠던 KOMSA 직원 간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자리다.
'KOMSA 힐링캠프'에 지원한 본사 및 지사 직원 18명이 에버랜드
내 캐빈 호텔인 흙브리지에 모였다.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도착한 직원들은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이날의 일정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KOMSA 힐링캠프'의 메인 프로그램은 '팀플 러너(TP-Runner)'
전체 인원을 3조로 나눠 에버랜드 내에서 미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각 조를 이끄는 조장들은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우승을 다짐하는 모습이었다.

팀플 러너의 진행 방식은 간단하다. 각 팀 소통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미션이 전달되고, 이를 팀원들과 공유한 다음, 미션을
완료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미션 본부에 보낸다.
총 8개 미션이 주어지며, 해결한 순서대로 점수 책정 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 제한된 1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미션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처럼 장소를 이동하며 해결하는
미션이 많기에 몸풀기는 필수! 강사의 안내에 따라 조별로 모인
직원들은 함께 동작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사전 미션을 통해
진행 순서를 정했다. 사전 미션에서 1점을 얻은 3조가 1번 코스,
2조는 2번 코스, 1조는 3번 코스로 배정됐다.



66

다른 팀과 동선이 겹칠 때는 서로 어떤 미션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힐링캠프를 온전히 즐기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99

팀플레이, 어렵지 않아요~

'팀플 러너'의 총 8개 미션은 동일하지만, 이동 순서는 랜덤이다. 힘찬 '파이팅'과 함께 3개 조가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1조의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3번 코스로 배정된 1조의 첫 미션은 '몸으로 KOMSA 표현하기'. 6명의 팀원들은 각 이니셜을 어떻게 표현할지 논의하더니 5명의 팀원이 각각 하나의 이니셜을 맡기로 했다. 팔과 다리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KOMSA 완성! 사진 전송 후 다음 미션이 도착했다. '에버랜드 직원, 빨간 모자 쓴 사람과 사진 촬영' 미션 이후에는 '기념품 가게 찾기' 미션을 진행했다. 기념품 가게에서 다양한 머리띠와 물품을 골라든 1조 팀원들은 놀이공원에 온 기분을 만끽하며 인증샷을 찍었고, 곧바로 '동물과 사진 찍기' 미션에 돌입했다. 1조는 원숭이, 토끼 등 12간지 동물과 촬영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 사이 암호해독 돌발 미션이 주어지기도 했다. 미션의 중반부에 들어서자 모두 텐션 업! 더 빨리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다른 팀과 동선이 겹칠 때는 서로 어떤 미션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힐링캠프를 온전히 즐기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음 미션은 '외국인과 동영상 촬영하기'. 에버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가족과 함께 "I love KOMSA, fighting"을 외친 1조는 곧이어 '포토 미션'을 진행했다. "더 높이 뛰어야 해요! 바로 지금!" 점프하고, 바닥에 눕기도 하며 열정적으로 미션을 수행한 팀원들의 웃은 땀으로 젖기도 했다. 놀이기구 인증샷 미션 후 마지막 미션을 할 차례. 모든 조가 동일하게 시도한 마지막 미션은 에버랜드 내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촬영, 조합해 제시어를 만드는 것이다.



놀이공원 내 어느 게시물 하나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1조 팀원들은 꼼꼼하게 시설을 둘러보며 글자를 완성해나갔고, 종료시간 전 모든 미션을 완료한 후 다시 홈브리지에 모였다.

소속을 넘어 하나 된 KOMSA인

3개 조가 모두 모이자, 서로의 미션 실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에 재생됐다. 직원들은 상대 조의 미션 수행 모습을 보며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저 외국인 가족은 동영상마다 나오네!"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제 우승팀 발표의 순간. 모든 미션을 수행한 팀 중 누적 점수를 확인한 결과, 1조가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을 차지한 3조에서 SNS를 담당했던 본사 해양사고예방실 양종희 주임이 소감을 전했다. 동물과 사진 찍기, 돌발 퀴즈가 기억에 남는다는 양 주임은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요. 미션을 해결하면서 친해져서 모두가 함께 단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라고 말했다. 본사 인재경영실 유재식 주임은 "인재경영실에 있어서 그런지 본적 없는 분들인데도 성함이 다 익숙했어요. (웃음) 평소 다른 직원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서로 알아가는 기회가 생겨 좋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KOMSA 직원들은 미션을 수행하며 친해진 팀원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고, 이후에는 놀이기구를 타며 자유시간을 가졌다. 미션 수행을 통한 단합과 성취감 달성, 자유시간을 이용한 에너지 충전 등을 경험한 KOMSA인들.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을 힐링캠프의 시즌2가 기다려진다. 🌐





2022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즐거운 해양레저 활동은 안전으로부터 출발한다!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남이섬에서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시설이 운영됐다.
체험객들은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설비 사용법, 생존수영 등의
다양한 해양안전 교육을 통해 기초 안전 수칙에 대해 배우고, 해양레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Text. 한울 Photo. 고인순



해양 안전의식 고취에 동참하다

북한강에 자리한 남이섬은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남이섬은 짚와이어나 모터보트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물길을
이용한 선박은 남이섬 탄생 이래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를 타고 넘실넘실 섬으로
들어가는 정취가 남이섬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즐거운 여행도 안전이 담보될 때 가능한 일. 때문에
남이섬 안전 관계자들은 KOMSA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이섬 랜딩사업부문의 임동훈 매니저의 설명이다.
“KOMSA는 가평과 남이섬을 오가는 선박의 각종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을 태우고 가평과 남이섬을 자주 오가는
선박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KOMSA가
실시하는 검사에 철저히 따르고 있고, 안전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남이섬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시설이 운영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은 기본적인





①



②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KOMSA가 함께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남이섬·여수·통영·강릉·음성·울주 전국 6개 시설에서 운영됐다. “지난해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남이섬과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섬 전 직원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어서 동참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여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은 해양레저 스포츠, 여객선 이용 등의 해양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움으로써 국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임동훈 매니저는 “물놀이가 많아지는 여름에는 이러한 체험이 필수 활동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안전 수칙만 제대로 알고 준수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며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해양안전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남이섬 내 워터가든 일대에 마련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 시설을 찾았다. 체험객들은 한쪽에

- 1 진지한 자세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는 어린이들
- 2 해양안전의 첫걸음, 구명조끼 빠르게 착용하기
- 3 KOMSA의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 안내
- 4 집중력 최고! 생존수영 강습
- 5 구명뗏목에 탑승하며 해양안전에 대해 몸으로 익히는 시간

마련된 선박 구명설비와 구명뗏목의 생존용품들을 살펴봤다. 아이들은 안전물품 하나하나가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찰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질문도 많아졌다. 강사가 체험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 후 진행 순서를 설명했다. 해양안전체험은 실내 체험과 실외 체험으로 나뉜다. 실내 체험은 심폐소생술의 절차 및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VR 가상현실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실내 체험이 마무리되면 구명조끼 착용 방법, 구명뗏목 작동 시연,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입수하기, 구명조끼 부력 느끼기, 체온유지 자세, 생존수영 방법, 구명뗏목 탑승 등의 순서로 실외 체험이 진행된다. 첫 순서로 심폐소생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알아봤다. 강사가 마네킹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였고, 이어서 체험객들도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았다. 심폐소생술은 성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도가 매우 높다. 심폐소생술을 배운 김지영 씨는 “평소 뉴스에서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사람을 구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했어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제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며 체험 소감을 전했다. VR 가상현실 체험은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였다. 여객선 탑승 시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 요령,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법과 퇴선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황처럼 구현된 화면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기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다. 실외 체험은 체험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면서 구명조끼 착용,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생존수영 실습 등의 해양사고 대처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체험객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은 건 구명뗏목 작동 시연이었다. 구명뗏목이 순식간에 펼쳐지는 모습에 체험객들은 큰소리로 함성을 외쳤다. 생존수영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물에 뜨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존 시간을 늘리면서 더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배우는 기초 수영법이다. 강사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몸에 힘을 빼고 배영하듯 누워 턱을 최대한 들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펼쳐주세요. 자전거를 타듯 발을 살짝 굴리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체험객들은 숙련된 강사들을 따라 생존수영을 익혀나갔다. 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부력 느끼기, 체온유지 자세를 비롯해 구명뗏목 탑승 방법까지 물속에서의 대처요령을 체험했다. 아이들에게 해양안전을 알려주고 싶어 체험을 신청했다는 김희원 씨는 “매해 여름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이러한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 매우 만족합니다”라며 체험 소감을 전했다.

KOMSA와 함께 해양안전 위해 노력할 것

남이섬에서는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오리배 등의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선박안전교육을 비롯해 해양안전 관련 교육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남이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여객선 선장님과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선박 인명구조 장비 교육, 응급처치, 비상훈련 등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규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은 가족, 동료, 친구가 즐겁고 재미있게 해양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남이섬은 앞으로도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KOMSA의 해양안전체험·교육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③ —



④ —



⑤ —



어선거래제도 운영

거래는 편리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어선을 사고팔 때,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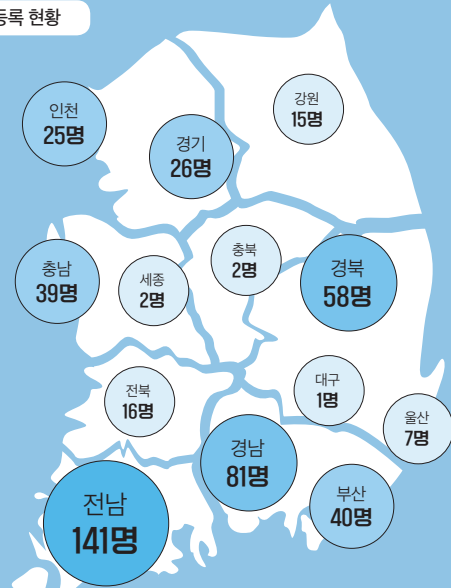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 시장에서 이뤄졌고, 어선중개업은 자격 제한 없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다수였고, 인적 네트워크 위주의 어선거래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불성실·불공정 중개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규제수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②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법령 또한 마련했다.

어선중개업자로 등록·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과 제도 등의 신규교육 이수와 더불어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이와 같은 어선중개업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www.어선거래.kr) 운영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선거래제도의 주요 내용과 어선거래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한눈에 알아보는 어선중개업 운영 현황 '22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등록 현황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

보증보험의 가입

중개사무소 확보

어선중개업 교육 이수

성별 등록 현황

남성
420명여성
55명

연령별 등록 현황

30대이하
51명4~50대
216명60대이상
208명

어선을 사고파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어선거래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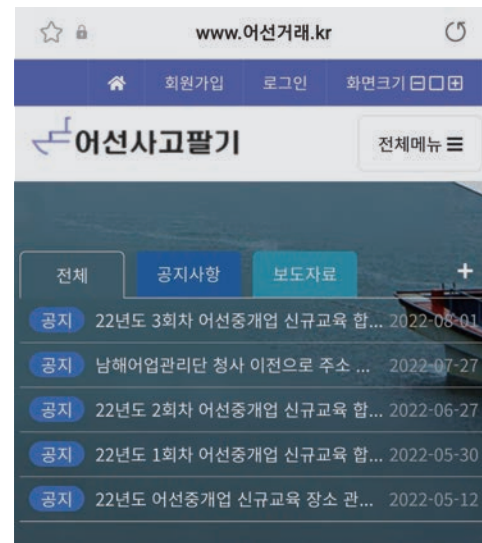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거래와 관련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어선거래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거래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어선중개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공정한 어선거래를 위한 어선중개업 교육을 지원한다.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어선거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 ① 어선기본정보 ② 어업허가정보 ③ 어선검사정보
④ 어선중개업인정보 ⑤ 어선중개업 교육정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설명회로 어선거래제도 활성화 유도!

어선거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지역 현장(어촌계 등)을 직접 찾아가서 어선거래제도를 홍보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선거래제도 대국민 홍보 이벤트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챌린지

어선 거래완료 등록과 매물 등록을 가장 많이 하신 어선중개업자분들(각 5명씩)을 선정해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대상
전국 어선
중개업자등록 기간
2022.1.1.
~ 10.31발표
2022.11.18.

※ 상세한 사항은 어선거래시스템 (www.어선거래.kr)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어선거래시스템 초성퀴즈 이벤트

공단 블로그를 통해 어선거래시스템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당첨되신 분들(20명)에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대상
국민 누구나등록 기간
2022.9.28.
~ 10.3.발표
2022.10.7.

※ 상세한 사항은 공단 블로그 (blog.naver.com /smartkomsa)에서 확인해 주세요.

KOMSA NEWS

2022 Autumn Vol. 51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워크숍 개최



공단은 지난 8월 12일, 세종시 본사에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해 여객선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 및 개선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써, 매년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안전감독관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의 현장 자율 점검 활동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토론했다.

(주)세종드론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공단은 지난 8월 16일, (주)세종드론교육원과 드론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세종드론교육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자격 취득 및 항공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며, 공단은 여객선 사각지대 및 항로 위해요소 등의 점검을 위해 전국 운항관리센터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객선 운항관리업무의 드론 운용 역량 강화와 신기술 활용 등을 위해 체결됐으며,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학술 및 산업 동향 정보의 교류, △현장 실습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의 협력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운항 및 해운분야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단은 세종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박운항 및 해운분야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센터를 개소해 대형상선, 중소형선, 어선 등의 전용 시뮬레이터 3종을 구축 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최신기술이 적용된 여객선 전용 시뮬레이터와 VR체험 장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 대형·중소형 상선, 여객선, 어선, 예인선 등 다양한 선종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뮬레이터는 주로 전문인력 교육에만 활용되었으나, 공단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대국민을 위한 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교 학급 단위로 무료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세종시행복교육지원센터 공식홈페이지(<http://sejong.go.kr/happyedu/damoa/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MSA NET 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본사 안내

044) 330-		
이사장	T. 2200~2	F. 2352
ESG혁신실	T. 2410	F. 2466
교육훈련센터	T. 2470	F. 2479
기획경영본부장	T. 2203	F. 2352
전략기획실	T. 2210	F. 2353
인재경영실	T. 2220	F. 2354
운영지원실	T. 2230/2380	F. 2357
윤리준법실	T. 2295	F. 2299
교통안전본부장	T. 2208	F. 2352
교통안전정책실	T. 2300	F. 2309
교통안전평가실	T. 2310	F. 2319
해양사고예방실	T. 2340	F. 2339
검사안전본부장	T. 2204	F. 2352
검사관리실	T. 2260	F. 2358
검사기준실	T. 2270	F. 2359
도면승인실	T. 2280	F. 2363
기술사업실	T. 2434	F. 2440
안전운항본부장	T. 2206	F. 2352
운항관리실	T. 2370	F. 2379
운항제도실	T. 2381	F. 2379
운항상황관리센터	T. 2670	F. 2389
기술연구원장	T. 2205	F. 2352
스마트안전연구실	T. 2450	F. 2461
해양환경연구실	T. 2250	F. 2365
어선연구실	T. 2570	F. 2579
노동조합	T. 2360	F. 2367
감사실	T. 2320	F. 2364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0~9/2268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지사 안내

안천지사(032) T. 764-6181~3 F. 764-6184 안천 운항관리센터(032) T. 889-3945~54 F. 889-4061	당진지사(041) T. 358-8697~8 F. 358-8641	서울지사(02) T. 2671-7838~9 F. 2671-7841
태안지사(041) T. 674-5447~8 F. 674-5449	속초 T. 635-5394 F. 631-6002	속초지사(033) T. 635-5394 F. 631-6002
세종본사(044) T. 330-2380 F. 330-2357	동해 T. 535-8091, 8093 F. 535-8094	동해지사(033) 동해 운항관리센터(033) T. 534-8437~9 F. 534-8440
보령지사(041) T. 933-3981, 5863 F. 932-1855 보령 운항관리센터(041) T. 931-9083~6 F. 931-9087	경북 T. 246-5394~5 F. 246-5396	경북지사(054) 경북 운항관리센터(054) T. 256-9784~7 F. 256-9788
전북지사(063) T. 452-8187~8 F. 452-8189 전북 운항관리센터(063) T. 471-7486~9 F. 471-7490	울산 T. 261-6124~34 F. 265-5394	울산지사(052) T. 261-6124~34 F. 265-5394
목포지사(061) T. 245-6142~4 F. 245-6145 목포 운항관리센터(061) T. 247-9457~66 F. 247-9594	부산 T. 638-6221~3 F. 638-6226	부산지사(051) 부산 운항관리센터(051) T. 469-8425~6 F. 469-8427
완도지사(061) T. 554-1474, 1480 F. 554-0069	여수 T. 654-5262~4 F. 654-5265	여수지사(061) 여수 운항관리센터(061) T. 662-9713~8 F. 662-9719
완도 운항관리센터(061) T. 555-4023~8 F. 555-4029	제주 T. 721-7401~2 F. 702-7404	제주지사(064) 제주 운항관리센터(064) T. 759-9780~3 F. 759-9786
고흥지사(061) T. 843-4-5394 F. 844-1369	고흥 운항관리센터(061) T. 844-9012~3 F. 844-9014	사천지사(055) T. 833-5394, 4998 F. 832-1484
		창원지사(055) T. 222/246-6774 F. 246-7838
		통영지사(055) T. 645-6011 F. 644-8661
		통영 운항관리센터(055) T. 649-8430~6 F. 649-8438

본사로 오시는 길



초성 퀴즈

<해안선> 독자를 위해 준비한 초성 퀴즈를 공개합니다!

아래 문장에 들어간 초성을 보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ㅎㅇㅇㅈ

찾아가는 'ㅎㅇㅇㅈ' 체험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KOMSA가 함께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HINT

<해안선> 가을호 43p '쫄인 KOMSA'를 확인하세요!

- 참여기간 2022년 9월 30일(금) ~ 10월 28일(금)
- 참여방법 QR코드로 접속, 정답 제출
- 당첨인원 15명(랜덤 추첨)
- 당첨선물 CU편의점 상품권 1만원 권(1명), 5천원 권(14명)
- 선물발송 참여기간 경과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음)



초성 퀴즈를 풀고, 하단에 <해안선> 후기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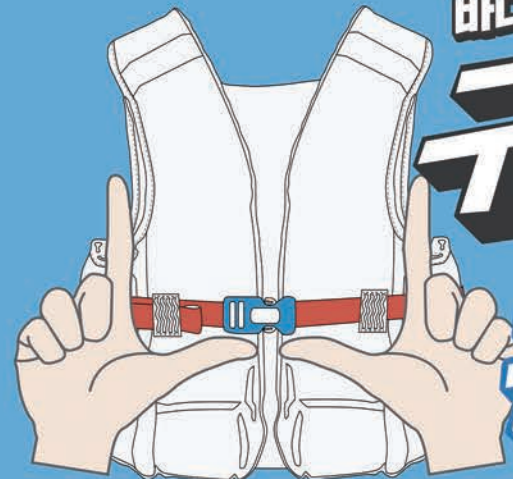
해양 안전



바다의 안전벨트, My Life Jacket

구명조끼

#海해주세요



구명조끼 해주세요!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